

The LEET BIBLE

2027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오르지 않는 LEET 점수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교과서, 리트바이블



PRINCIPLE 상



PRINCIPLE 상

제목	The LEET BIBLE 2027 Principle (상)
발행일	2025년 9월 8일 초판 1쇄
Version	v2027-1.00
지은이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처랩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A8924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인쇄	(주)에이프린트
정가	99,000원
ISBN	979-11-992339-9-7 (15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교재구매 및 더 많은 학습정보는
리트바이블 공식 홈페이지에서!

leetbible.com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복제/배포/수정은 엄금하며, 본 교재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들어가며

The LEET BIBLE

Principle (상) 2027 개정판 서문

The LEET BIBLE이 세 번째 개정판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초판과 개정판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피드백이 이번 제3판을 완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개선 제안을 주신 부분들이 설명 방식을 명확하게 다듬고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개정판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교재의 내실 강화**였습니다. 수험생 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되, **단순한 분량 증가보다는 실제 학습 과정에서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성 방식을 재정비하고 각 페이지의 정보 밀도와 충실도를 높였습니다. 수험생의 편의와 가독성 제고를 위해 오타자를 바로잡고, 어색한 문장 구조와 불필요한 반복 표현들을 정리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다듬었습니다. 또한 교재 전반의 표현과 용어를 통일시켜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했습니다.

2027학년도 시험 준비에서 중요한 점은 **LEET의 기초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새로운 제시문과 문제가 등장하지만, 그 속의 사고 원리와 문제 해결 방향성은 동일한 틀 안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일관된 기초를 충실히 반영했으며, 최신 기출문제를 수록·분석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핵심 흐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경험을 이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The LEET BIBLE이 LEET를 바라보는 방향성

출제자의 인적 자원 POOL이 비슷하고 평가하려는 능력과 방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The LEET BIBLE은 **LEET가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이는 두 시험이 실전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학습 전략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LEET에서는 난항을 겪습니다. 만약 두 시험의 고득점 전략이 동일했다면, LEET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LEET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능이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성 중심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다수의 시험과 준비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LEET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간주하고 과거 성공했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 즉 휴리스틱(Heuristic)에 빠집니다. LEET라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LEET가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왜 적용이 어려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LEET 학습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LEET 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명확한 훈련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EET BIBLE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나 문제 풀이 요령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과정을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된 사고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The LEET BIBLE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전략을 넘어, 수험생이 실제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Principle (상)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LEET에는 언어이해든 추리논증이든 과목과 무관하게 수험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능력을 '형식적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 대비가 아닌, 미래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근본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은 흔히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학자나 교수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법조인의 핵심 역량은 복잡한 사실관계에서 핵심 논점을 도출하고, 이를 법 조문에 포섭하는 능력입니다. 즉, 실제 사건과 법체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법조인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인 배경지식은 부차적입니다. 특정 분야 경험이 있다면 업무 효율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진정한 법조인은 어떤 분야에서든 기본적인 법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조인 모두에게 공통되는 능력이 존재**한다는 방증이며, 저는 이를 '**형식적 사고**'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 법조인의 사고방식을 체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는 마치 고등학생이 성인이 된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The LEET BIBLE의 Principle 시리즈는 상, 하라는 두 권의 커리큘럼에 걸쳐 LEET가 요구하는 사고의 본질을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LEET를 지도해 왔던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많은 수험생을 만나면서 발견한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특정 유사한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실질적인 성적 향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Principle (상) 교재는 이 포인트에 근거해 **LEET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실전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과거 기출문제를 활용해 언어이해, 추리논증 과목을 아우르는 LEET의 핵심 기초를 배우며 이를 통해 LEET의 본질과 요구사항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LEET는 시험입니다. 시험장에서의 유일한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맞히는 것**입니다. 제시문과 문제를 100% 이해하거나, 모든 내용을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LEET 준비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LEET의 높은 제시문 난이도와 제한된 시간은 법조인의 역할이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교재는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떤 사고를 해야 하고,

어떤 사고를 피해야 하며, 실제로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피상적이고 사후적인 이론적 접근방식이 아닌, 철저히 실전적 관점에서 탐구**합니다. 모든 내용은 **시험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수험생은 시험장에 혼자 갑니다. 최종적으로 홀로 자신의 미래를 걸고 답을 도출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실전 상황에서 필요한 사고방식과 접근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습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해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 환경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장마다 구체적인 훈련 방법과 실전 적용 전략을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단계별 학습 가이드와 함께 실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혼자서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맺음말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LEET 신수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EET 성적은 신이 내린다는 자조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수험생의 도전 의지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통념**입니다. The LEET BIBLE은 이러한 막연한 속설을 넘어, 수험생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본서가 제시하는 방법론을 충실히 따르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점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 LEET의 준비란 여러분들께 익숙한 개념과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해서 푸는 시험들과는 달리 **철저히 '훈련'을 통한 '체화'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최소 3회독 이상은 권장**드립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값진 도전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향한 여정에 본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시작하기에 앞서

The LEET BIBLE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The LEET BIBLE에서 LEET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히 '실전 중심적'**입니다. 각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제시되는 주요 방법론을 바탕으로, 실제 LEET의 기출문제를 마치 **옆에서 과외선생님이 풀어주는 느낌**으로 함께 학습해 보는 과정을 통해 풀어가며 **자연스럽게 원리가 습득되고 체화될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개념설명과 문제풀이를 넘어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팁은 물론, 앞서 LEET를 거쳐간 선배 수험생들의 현장감 담긴 질문과 이야기, 그리고 LEET 준비 과정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실제로 미래의 법조인 현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여러분께서 LEET 정복을 돕기 위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1 LEET Tips



LEET TIPS

가장 효과적인 LEET 실전 학습법

The LEET BIBLE을 통해 어떻게 LEET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섹션으로, **본문 중간중간에서 각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시해 드리는 파트**입니다. 암기 일변도의 개념 정리에 머물지 않고 LEET 시험을 구성하는 각 문제 유형별 실전 대응법 또는 문제풀이 방법론을 제시하는 의견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나 특정 유형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교재를 빠르게 넘기시면서 Tips 부분만 잘 살펴보셔도 **문제 대응을 위한 길잡이로서 충분할 것**입니다.

2 Review Note

Review Note

✓풀어볼 문제

2015년도 추리논증 22번

The LEET BIBLE은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실전에서 정답을 가려내는 접근법에 집중합니다. **Review Note**는 수험생 스스로 문제 접근 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본 교재의 대부분 문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Review Note** 양식은 리트바이블 홈페이지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 Review Note들은 실제 LEET를 준비한 **선배 수험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완성된 전문가의 해설이 아닌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고민했던 생생한 기록이기에, 수험생들의 공통된 어려움과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차별화 전략까지 담겨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직접 Review Note를 작성하며 교재 예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Principle 단계에서는 정답 여부보다 사고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실전적 LEET 풀이법을 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최신기출 적용하기

2027학년도 개정판부터 새로 추가된 콘텐츠로, **각 장에서 배운 내용을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문제와 답 선지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앞서 학습한 방법론을 바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각 장의 핵심 개념과 접근법이 2026학년도 LEET 실제 문제에서 정말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 배운 내용이 최신 기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체험하면서, 자신이 학습한 방법론이 실전에서도 유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섹션을 통해 과거 기출로 훈련한 원리가 최신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확신을 갖고, 동시에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각 문제의 전체 풀이는 **Final Round 교재에서 상세하게 열람 가능**

3 Lawyer's Comment

Lawyer's Comment

✓ LEET에 저자의 변호사 경험을 더하여 배우는 Legal Mind

본 섹션은 단순한 실무 사례 소개가 아니라,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하는 **LEET 공략을 위한 실전적 방법론이 실제 법조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자가 현직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느꼈던 현업 경험을 바탕으로, **각 단원에서 배웠던 핵심 포인트를 가상의 사례에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섹션을 통해 **LEET가 요구하는 능력이 왜 미래 법조인에게 필수적인지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풀고 있는 한 문제 한 문제가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실제 법률 실무에서 매일 마주하는 사고 과정을 훈련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현재의 고된 학습이 로스쿨 입학 이후는 물론, 법조인이 되어서도 여러분의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이해한다면, **LEET 준비 자체가 훨씬 더 의미 있는 과정으로 느껴지고 학습에 대한 동기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Lawyer's Comment

✓ LEET에 저자의 변호사 경험을 더하여 배우는 Legal Mind

LEET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험생들은 LEET 개인용 로스쿨 입학을 위한 불가피한 관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법관 로스쿨에 가서 법학 공부 할할 수 있는데 저는 장래를 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LEET가 요구하는 능력은 단순한 시험 기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LEET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능력이기에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실무 능력과 직업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법조인으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지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Session을 통해, LEET의 문제 해결 능력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실제 법률 실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을 통해 LEET 학습이 단순한 시험 합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지점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EET 대응형 문제의 의의와 실무적 가치
: 시험을 넘어 법조인의 핵심 역량으로

1. 대응지침 파악 능력의 의의와 중요성

대응 지침을 파악한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에서 객관적인 법률 기준을 찾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나 정보를 구분·대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법조인에게 이러한 능력이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 사고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조인들은 매우 수많은 사건과 사례를 다뤄면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분류하고, 법적 요건과 대응시키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LEET의 대응형 문제는 바로 이러한 법조인의 실무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일상을 법적 요건으로 포섭하는 방식

법조인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특정 행위나 사실관계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LEET 대응형 문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핵심 능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법률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과정을 겪게 됩니다.

-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 불법행위 요건 해당 여부
- 계약의 성립 요건 구비 여부
-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보통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법적 요소를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각 질문에 들어갈 법 문장을 파악하는 형태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행위 주체는 누구인가?
- 어떤 객체나 피해가 발생했는가?
- 고와나 과실이 있었는가?
-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여기서 많이 본 표현을 아십니까? LEET 문제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이 매우 많이 출제됩니다. 즉, LEET의 대응형 문제 뒤 과정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문제에서 제시되는 '사실관계'를
-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출제 의도(구성 요건 또는 조건)'에 대응시켜
- 최종 결론(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LEET 각 영역으로 구체화하면, 연이행에서 제시된 주장과 선택지 내용 사이의 논리적 대응관계를 파악하는 부분, 주어진 상황에서 조건과 결론 사이의 논리적 대응 관계를 검토하고 요구하는 부분, 법문 문제에서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의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 위의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처럼 주어진 예시에서는 객관적인 표시(정보)에 따라 문제를 푸는 것이 LEET 고득점의 핵심이며는 아니며, 법조인 실무에서 LEET 문제 해결 과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고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4 Debate Session

Debate Session

✓ 선배 수험생의 생생한 이야기와 리트바이블의 코멘트

다년간 LEET 수험생들을 만나면서 질문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된 질문을 해결했을 때 수험생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Debate Session에서는 **지난 수년간 LEET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선별**하여 담았습니다. Q&A 세션과 Comment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강의를 듣는 듯한 생생한 말투를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문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각 장에서 학습한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LEET 고득점을 위한 핵심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bate Session

✓ 선배 수험생의 생생한 이야기와 리트바이블의 코멘트

본 세션은 The LEET 리트B를 수험생 친화적으로 수험생들의 직접 질문과 관련된 사고 과정의 맥락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원리에 대하여 보다 설명을 덧붙이고, 심화 이해 및 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전년 여름에 배운 학생들이 자칫만 해설처럼 같은 글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 중에서 쓰였던 리트B도 선배의 지도를 통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험생들이 순차적으로 리트B를 하는 것만 POINT들이 공통된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분부터는 전설적으로 리트B 고득점을 위한 7가지의 형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먼저 하신 것만으로도, 설명해 드린 원리를 다시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1

용어가 헷갈려요!

선배님들이 주시는 용어들을 보면 논리의 변칙적 연속, 함수 등 여러 용어들을 왜 이런 용어구나 하는 데, 보다 구체적으로 선배님들이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 선배님들이 배운 것을 숙제하는 언어가 완전히 와 닿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선배님들의 언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본 언어로는 논리의 변칙, 함수, 일상어의 간과 등이 있습니다.

- 논리의 변칙적 연속이라는 단어는 사실 관계를 가리키는 데 포함될 수 있는 모순적 단어로 쓰는 것과, 구획의 할당이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체크한 것이 15~20개 정도라고 학습자는 자보다 더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칙적 연속이란 말은 후 사용자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일상어의 간과: 사실상 개념으로 쓰이고 있거나, 조건적으로 혹은 선형적으로 용어를 수백에 없는 문장 구절이나 단어만 알았을 때, 이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언어)주지 못함, 문장을 그렇게 용어를 수백에 없으니 배워서 놓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함수형 문제: 주어진 문제의 경우 특히 40개 각자의 요구하는 문제의 Mechanism입니다. 이를 기존 용어로 풀이하면 간과-역하의 접근법, 모형주의의 모형적, 법적 주제의 적용 등이 그려집니다. 이런 문제들의 경우, 해당 '함수'를 생각하면서 풀고자 하면 자칫하면 수험생이 단어 하나에

Debate Session

나에 합류되어 해석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을 가질 수 있어, 이를 지향하기 위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대용량 문제와 함수형 문제를 나누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문제를 정복해 가는 과정은, 1) 대용량 문제를 기본으로 문제 풀이해 접근한 이후, 2) 개별적으로 문제를 요구하는 단위의 상황과, 또는 함수의 상황에 대한 논리를 향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위치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의 학습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학습자로서 공부할 때, 대용량 문제의 경우 '시간을 채워 줄지 못했는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함수형 문제는 '해 함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간접적 속에서도 어떻게 주어진 함수를 진위하게 풀이해 나갈 것인가'가 학습 목표에 해당합니다.

대용량 문제	함수형 문제
공식적으로 논리나 한 번의 문장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풀을 고르기만 하면, 문제를 읽고 있다. 용어를 잘 쓰는 문제.	공식적으로 논리나 한 번의 문장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풀을 고르기만 하면, 문제를 읽고 있다. 용어를 잘 쓰는 문제.
대용량 문제: 문제 풀이해 접근한 이후, 2) 개별적으로 문제를 요구하는 단위의 상황과, 또는 함수의 상황에 대한 논리를 향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함수형 문제: 문제 풀이해 접근한 이후, 2) 개별적으로 문제를 요구하는 단위의 상황과, 또는 함수의 상황에 대한 논리를 향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대용량 문제: 문제 풀이해 접근한 이후, 2) 개별적으로 문제를 요구하는 단위의 상황과, 또는 함수의 상황에 대한 논리를 향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함수형 문제: 문제 풀이해 접근한 이후, 2) 개별적으로 문제를 요구하는 단위의 상황과, 또는 함수의 상황에 대한 논리를 향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즉, 문제의 구분은 오로지 학습 시 주중 학습방법의 성숙의 방향성만을 위한 것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주제를 정리하고, 논점 문제라고 접근할 때에 달라지는 것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이해와 주제는 논점 모두 대용량 문제가 50%라고 생각됩니다. 논리 이해가 되는 '주제형, 논점형' 분류에 속하는 문제들의 경우, 결과는 상당수가 대용량입니다. 하지만 굳이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영역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로 바람직한 학습 목표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본 세션에서는 문제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대용량 문제: 사실 여기에도 법적 모형, 법적 주, 과학 주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다음을

시작하며 2026 LEET 출제양상 분석	12
--------------------------------	----

CHAPTER

01

대응형 문제 14

1. LEET의 기본 점수 영역에 해당하는 ‘대응형 문제’란 무엇인가	16
2. 대응형 문제에서의 대응 지점은 무엇인가	26
3. 대응형 문제의 핵심 사고 : 차원과 논의 평면적 변수라는 사고의 틀	40
4. 대응형 문제의 특징 : 사례와 형식적 변수를 그대로 이용하라	41
5. 첫 장 ‘대응형 문제’의 개념 정리	64
Lawyer's Comment & Debate Session	82
마무리 쉬는 코너 The LEET BIBLE 선배 수험생님의 이야기	96

CHAPTER

02

차원의 이해 98

1. 논의의 층위를 만드는 ‘차원’의 이해	100
2. 차원의 구획은 왜 중요한 것인가?	109
3. 언어이해에서 나타나는 차원의 구획 양상 이해하기	132
4. 이번 장을 마무리하며	214
Lawyer's Comment & Debate Session	232

CHAPTER

03

논의의 평면 244

1. 개념 복습 및 논의의 평면 개념 소개	246
2. 논의의 평면 관련 변수 정리	312
Lawyer's Comment & Debate Session	322
마무리 쉬는 코너 수험 공부방법론 수험생 NOTE	336

CHAPTER

04

차원과 논의의 평면의 심층적 이해 및 적용 342

1. LEET 정보습득/처리방식을 법학 텍스트로 적용하기	344
2. LEET와 법학은 어떻게 같은 것인가, 구체적 학습방법 적용하기	372
Debate Session	380

CONTENTS

CHAPTER

05

단어의 실행 : 문해력의 진정한 의미 386

1. 단어의 실행이란? 생소하지만 중요한 개념 388
2. 단어의 실행의 실천적 의미 419
- Debate Session 499

CHAPTER

06

단어의 실행 : 첫독해와 재독해의 구분 506

1. 첫독해와 재독해란? 508
2. 쉬운 제시문의 특징 : 이항관계 자체를 활용하는 제시문 510
3. 이항관계의 심화형 532
4. 과학원리형(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는 제시문) 탐구 563
- Debate Session 610

CHAPTER

07

함수형 문제 616

1. 함수형 문제는 함수의 발견과 실행 두 단계로 끝 618
- Debate Session 678
- 마무리 쉬는 코너 저자 사례형문제가 수험생께 드리는 코멘트 684

CHAPTER

08

LEET 총론적 사고의 실천적 정리 686

1. 제시문을 외우려 하지 말고 돌아가서 대응하라 688
2. 돌아가려면 제시문을 크게 읽어 형식을 파악하고 위치를 각인해야 한다 691
3. 제시문이든 문제든 선지든 단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693
4. 언어이해의 정보습득방식에 대한 부가적인 노력과 근원적 고찰이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수험형 텍스트의 필연적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693
- 마치며 | LEET고득점을 위한 여러분들의 다음 숙제 696
- 정답지 707

시작하며

2026 LEET 출제양상 분석

2026학년도 LEET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흔히 "사설화"라고 불릴 만큼 체감 난이도가 크게 상승한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추리논증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단순히 문제의 양상이 복잡해졌다는 수준을 넘어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의 층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두터워졌기 때문**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정형화된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한 문제 한 문제의 기준선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상승한 구성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특히 강조된 점은 **선지 판단의 층위(차원) 구분**이었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조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표현(조건·전제·예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갈랐습니다. 강화·약화·가설검증 등 친숙한 유형조차도 실제로는 실행형 검증, 즉 선지를 실제 논증에 대입해 보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오답을 소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소 추리논증에 자신감을 가졌던 수험생들조차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습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전의 짧은 시간 안에서 논리의 평면적 변수들을 얼마나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기본기와 원리 이해가 잘 되어 있더라도, **실제 시험 상황에서 "아는 것을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면 난이도의 벽을 체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어이해 영역 역시 최근 기조와 마찬가지로 실전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철학 제시문에서 보였던 개념 간의 관계나 과학 원리형 제시문에서의 복잡한 설명은 수험생이 지문을 처음 접했을 때 구조를 파악하고 의미의 맥락을 따라가는 데 큰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첫독해 과정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이 컸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지문을 읽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정답 선지를 고르는 논리는 의외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모두에서 정답은 차원의 구획과 같은 형식적 사고에 충실하였으며,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구분과 같이 논리적 층위의 구획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반면 오답은 개념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거나 관계를 흐릿하게 만들어, 혹은 차원을 교묘히 전환하거나 전제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혼란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정보습득과 정보처리 차원 모두에서 수험생이 얼마나 제대로 훈련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드러나는 시험이었습니다. 단순한 키워드 대응이나 기계적 암기로는 접근이 불가능했고, 제시문의 구조를 파악하고 개념 간 관계를 차원별로 구획해내는 형식적 사고 훈련을 충실히 거쳐야만 정답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추리논증에서는 The LEET BIBLE에서 강조해 왔던 “유형별 특성의 인지 ⇒ 차원의 구획 ⇒ 선지 실행 검증(단어의 실행 과정)”이라는 절차를 체화한 수험생이라면, 난이도가 한 단계 상승했음에도 다수의 문항을 기본 문제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2026학년도 LEET는 난이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출제의 방향과 핵심은 여전히 예측 가능했던 시험이었습니다. 형식적 사고와 차원 구획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충실히 수행한 수험생에게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험이었으며, 이는 The LEET BIBLE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실전 접근법, 즉 유형별 결정 기준을 구조화하고, 실행형 검증으로 오답을 소거하는 절차에 대한 익숙도를 높이는 훈련의 중요성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왔더라도 실전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 이를 얼마나 능숙하게 풀어내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과제였으며, 이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사고의 체화된 습관과 훈련된 절차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CHAPTER

01

대응형 문제



The
LEET
BIBLE™

“

**대응형 문제만 제대로 맞혀도
LEET에서 125-130점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수험생분이
대응형 문제를
대응형 문제처럼
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 1 장

대응형 문제

The LEET BIBLE

1 LEET의 기본 점수 영역에 해당하는 '대응형 문제'란 무엇인가

대응형 문제는 LEET에서 가장 빈출되는 문제 유형으로서 **'문제 또는 제시문에서 표현된 형식적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여 연결하는 문제 유형'**¹입니다. 이와 같은 대응형 문제에서 요구되는 사고방식은, LEET뿐만 아니라 실제 법조 실무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동일한 만큼 **법학적성을 묻는 LEET에서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문제 스타일**입니다.

대응형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표현을 이차적으로 포섭 또는 재가공하는 **추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어진 그대로 활용**하여 정답의 근거가 되는 판단 내지 사고방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즉, 대응형 문제 풀이 방식은 **주어진 지문을 문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대응형 문제의 정답률을 높이려면 고려해야 할 변수로 무엇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탐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변수에 따른 적합한 대응 방식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글을 주어진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비단 대응형 문제 형식뿐만 아니라 LEET 전반에

1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하는 개념은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실전 중심적이며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합니다. 수험생들이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본 서의 주된 목적입니다. 본 서의 용어와 개념은 학문적 정의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행동 지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어 자체보다 그 의미와 메시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 수험생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은 대응형 문제 유형에서 문제 풀이 속도를 크게 높여 적은 시간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간 단축에 주안점을 두고 연습해야 합니다. 대응형 문제 유형에서 시간을 단축하지 못한다면 대응형 사고를 전제로 하여 응용되는 여타의 문제 유형에서도 점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LEET TIPS

가장 효과적인 LEET 실전 학습법

LEET를 포함한 적성형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의 7~80%는 대응형 문제에 해당합니다. 대응형 문제란 말 그대로 제시문에 표현된 문장을 그대로 대응하여 푸는 문제를 말합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험생분들은 이러한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언어이해/추리논증이라는 LEET 과목 분류와는 무관하게, 모든 LEET 문제는 크게 대응형 문제와 함수형 문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응형 문제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문제이고, 함수형 문제는 시간을 줄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각 유형에 대해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LEET에서는 대응형 문제가 70~80%, 함수형 문제가 나머지 20~30%를 차지합니다². LEET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응형 문제를 많이 맞혀야 합니다.**

한편, 전국 평균 점수에 물려있는 수험생 대다수가 제시문이나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과 표현을 그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수험생이 익숙한 기존의 수능 독해 방식대로 제시문을 암기하려고 하고, 둘째로 제한된 시간에 쫓겨 눈에 보이는 정보를 순간적으로 외워 문제를 빠르게 푸는 타임 어택(Time attack)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험생은 문제와 지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상식이나 정보를 사용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LEET 시험은 암기형 시험이 아니라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대응하고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시험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보게 될 지문과 문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제에 생소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지문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해당 지문을 일독(一讀)에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험생에게 요구되는 능력인 ‘대응력’은 본문의 정보를 완전히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언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한된 시간에 ‘지문의 해당 부분’에 제시된 정보를 기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자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LEET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험생들은 LEET가 단순히 로스쿨 입학에 위한 불가피한 관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만 통과하면 로스쿨에 가서 법학 공부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장애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LEET가 요구하는 능력은 단순한 시험 기술을 훨씬 넘어서는 값어치를 지닙니다. LEET에서 요구되는 **능력치가 미래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실무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법조인으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지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당 Session을 통하여, LEET의 문제 해결 능력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실제 법률 실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LEET 학습이 단순히 시험 합격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지점을 깨달으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EET 대응형 문제의 의의와 실무적 가치 : 시험을 넘어 법조인의 핵심 역량으로

1. 대응 지점 파악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

대응 지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나 문맥에서 객관적인 분류 기준을 찾아내어, 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나 정보를 구분·대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법조인에게 이러한 능력이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 사고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조인들은 매일 수많은 사건과 사례들을 다루면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분류하고, 법적 요건과 대응시키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LEET의 대응형 문제는 바로 이러한 법조인의 실무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일상어를 법적 요건으로 포섭하는 방식

법조인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행위나 사실관계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LEET 대응형 문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핵심 능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법률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 과정을 겪게 됩니다.

- ✦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 ✦ 불법행위 요건 해당 여부
- ✦ 계약의 성립 요건 구비 여부
- ✦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보통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형식적인 요소들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각 질문에 들어갈 빈칸을 끼워맞추는 형태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 행위 주체는 누구인가?
- ✦ 어떤 객체나 피해가 발생했는가?
- ✦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가?
- ✦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어디서 많이 본 표현들 아닌가요? LEET문제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이 매우 많이 출제됩니다. 즉, LEET의 대응형 문제도 위 과정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문제에서 제시되는 '사실관계'를
- ✦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출제 의도(구성 요건 또는 조건)'에 대응시켜
- ✦ 최종 결론(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LEET 각 영역으로 구체화해보면, 언어이해에서 제시문의 주장과 선택지 내용 사이의 논리적 대응관계를 파악하라는 부분, 추리논증에서 조건과 결론 사이의 논리적 대응 관계를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부분, 법령 문제에서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의 대응 여부를 판단하라는 부분이 위의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처럼 주관적 해석보다는 객관적인 표지(징표)에 따라 문제를 푸는 것이 LEET 고득점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법조인 실무와 LEET 문제 해결 과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고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3. 구체적 법적 실무 사례로 살펴보는 대응형 사고

가. 형법 사례 : 절도죄 구성요 분석을 통한 대응적 사고의 적용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조문 하나에도 법조인의 대응적 사고방식과 LEET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재물' 요건을 검토할 때, 법조인은 ① "타인의" 부분에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② "재물" 부분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③ 그리고 해당 재물의 보관 상태에서 점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 과정은 LEET 문제에서 "A의 소유/B의 소유"와 같은 대비 구조나,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가치 없는 물건"과 같은 구분으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이러한 기본 구조가 공동 소유물 관련 문제, 유실물 습득 사례, 포기된 물건 관련 쟁점, 점유와 소유가 분리된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서 출제될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절취' 요건을 분석할 때는 더욱 복잡한 대응 관계가 나타납니다. 법조인은 물건에 대한 지배의 이전 여부, 피해자의 점유 침해 사실, 영구적 소유 의사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이는 LEET 문제에서 "동의 없는 행위/동의 있는 행위", "일시적 사용/영구적 보유 의사", "점유 침해 있음/점유 침해 없음"과 같은 대비 구조로 변형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차량 무단 사용 사례, 일시 점유 침해 사례, 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다양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제 판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범죄자의 주관적인 범죄의사가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일단,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타인 소유 인식 여부, 영구적 영득 의사의 존재, 위법성 인식의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판단 요소를 LEET 문제화한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고의 있음/고의 없음", "인식 있음/인식 없음", "의도적 행위/우연한 행위"와 같은 대비 사례로서 선지 속에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B의 자전거를 가져간 사례"를 통해 법조인의 단계적 검토 과정과 LEET 문제 해결 과정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인은 먼저 자전거의 소유권 귀속을 확인하고, A의 행위 태양을 분석하며, A의 주관적 의사를 파악한 후, 위법성 조각 사유를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LEET 문제에서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주관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Debate Session

✓ 선배 수험생의 생생한 이야기와 리트바이블의 코멘트

본 세션은 The LEET BIBLE을 학습한 수험생들이 실제로 겪었던 고민과 그 해결 과정을 담은 공간입니다. 다년간 수험생들과 함께하며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특정 지점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질문이 매년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통된 난관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한다면 LEET 고득점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학생들이 지냈던 고민이나 해결 방향 같은 글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다른 학생분들께서 쓰셨던 리뷰노트나 선생님의 피드백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선배들의 생생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실제 학습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Q&A와 Comment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 강의를 듣는 듯한 생생한 대화체로 구성하여, 본서의 원리가 실제 학습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되는지 함께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1

용어가 헷갈려요!

선생님께서 쓰시는 용어(예를 들면 논의를 평면적 변수, 함수 등)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 이런 의미구나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선생님의 언어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깨달음을 표현하시는 언어가 완전하게 와 닿지 않아서 시간이 되신다면 선생님만의 언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썼던 용어로는 논의의 평면, 함수, 일상어의 간과 등이 있는데,

- ✦ **논의의 평면적 변수**라는 단어는 사실관계를 가리키는 데 포함될 수 있는 모집합적 단어로 쓰는 것이고, 구획의 장치가 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제가 체크한 것이 15~20개 정도고 학습자는 저보다 더 세밀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견보다 중요한 것은 발견 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는 일입니다.
- ✦ **일상어의 간과**는 사실상 개념어로 쓰이고 있거나, 조건적으로 혹은 선언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장 구절이나 단어를 말합니다. 이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언어/추리 동일), 문제를 그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으니 빼먹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 ✦ **함수형 문제**는 추리논증의 경우 특히 40개 각각이 요구하는 문제의 Mechanism이 있습니다. 이를 기존 유형으로 풀이하자면 강화·약화의 접근방식, 모형추리의 모형 적용, 법적 추론의 적용 등이 그러합니다. 이런 문제들의 경우, 해당 “함수”를 생각하면서 풀고자 하면 자칫하면 수험생이 단어 하나 하나에 함몰되어 해석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이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 이를 지향하기 위해 만든 개념어입니다.

대응형 문제와 함수형 문제를 나눈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문제를 정복해 가는 과정은, 1) **대응을 기반으로 문제 풀이에 접근한 이후**, 2) **개별적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단어의 실행 과정, 또는 함수의 실행에 대한 능숙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눈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의 학습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복습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대응형 문제의 경우 ‘시간을 왜 줄이지 못했는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는가’가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 함수형 문제는 ‘왜 함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는가’, ‘긴장감 속에서도 어떻게 꾸역꾸역 함수를 진득하게 풀이해 나갈 것인가’가 학습 포인트여야 합니다.

대응형 문제	궁극적으로 눈 땀이 안 났니(본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답을 고르기인데, 생각을 하고 있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 ▶ 학습 방향 면에서 문제 되는 양상 - A의 B에 익숙해지기 (구체적 권리 V. 추상적 권리) - 차원 구획에 익숙해지기 - 사례를 그대로 대응시키기 - 일상어를 간과하지 않기(반복되면 개념어로 받아들이기 준비하기)
함수형 문제	1) 함수를 찾고, 2) 시킨 대로 해보기 (감추어져 있는 변수를 찾아가는 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시험장에서 그 시간이 걸리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오류를 고쳐 가야 한다) ▶ 학습 방향 면에서 문제 되는 양상 - 함수를 찾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간과한다. - 시킨 것만 해야 하는데, 시키지 않은 것들을 하는 데 시간을 소모한다. - 시킨대로 하는데 나만의 시행착오에 빠진다.

즉, 문제의 구분은 오롯이 독학 시 추후 학습 방향 설정을 위해 나눈 것뿐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추리형 문제라고, 논증형 문제라고 접근 방향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일차적으로 언어이해와 추리 논증 모두 대응형 연습이 50%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추리형, 논증형” 분류에 속하는 문제들의 경우, 결국은 상당수가 대응입니다. 하지만 굳이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영역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영역별로 바람직한 학습 목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리논증의 문제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대응형 문제** - 사실 여기 안에도 법적 모형, 법적 추리, 과학 추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이들을 모두 대응형 문제로 묶은 이유는 지문을 질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대응을 통해 빠르게, 자신감 있게 체크하고 넘어감으로써 실제 시험장에서 다음 문제를 안정감 있게 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추리형 문제** - 추리형은 문제가 요구하는 함수를 발견해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수 수행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겪는 오류, 특히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하는 점을 교정하고

함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사실 이런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음)을 가르쳐 드리려고 설정했습니다.

- ◆ **실험형 문제** - 실험형 문제는 전제와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등 관계적인 측면, 설계적인 측면에서만 출제되는데, 보통 출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함수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본적 지식과 내용을 익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분류했습니다.
- ◆ **논리게임형 문제** - 이 역시 시험에서 최대 4개 나오는데, 여기에 시간을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마지막에 푸는 것을 추천) 하고, 4개 중에 3개 이상을 맞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유형은 (개인마다 전략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실전에서 마지막에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표 문제 등의 경우 다른 추리논증과 동일한 사고방식이 요구됩니다. 즉, 별개의 영역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2문제를 맞히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사실 2개 맞히면, 논리게임 때문에 추리를 못 봤다고 할 수 없음).

추리의 경우, 40문제로 시험 구성 및 방식이 변화하였다고 해도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문제 구성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은 같습니다.

언어이해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획합니다.

- ◆ **이항관계형 문제** -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쉬우므로 여기에서 시간을 절약하면 좋습니다. 출제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체크하고 돌아와서 읽을 수 있게 연습해야 합니다.
- ◆ **과학잡지형 문제** - 핵심 문장 하나 뽑아내서 문제가 여기에서밖에 출제 못 하니까, 정보량 줄여가면서 시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이항관계 심화형 문제** - 좀 어렵게 관계를 설정해 놔지만, 분기점을 잘 체크해서 실수 안 하도록 특히 당황하지 않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이후 '분명히 이 지문 세트 2~3번은 적용형이나 추론형일 텐데' 여기서 질적 판단하려 하지 말고 일단 대응, 차원의 구획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연습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시험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 훈련을 통해 시간 줄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 **변수 다수형(고전 제시문, 정치제시문 등) 문제** - 이 유형도 관계라는 측면에서 속성을 바꾸는 등 반복되는 출제 유형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특히 마지막 문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도 해석이 아니라 대응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 ◆ **원리 파악형 문제** - 전략적으로 3문제 중 2문제를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되 최근 난이도를 고려할 때 아예 풀지 못해도 로스쿨 입학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장 난이도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역시나 글이 잘 안 읽힌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므로 문제를 별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찾고 언덕과 분기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The LEET BIBLE

선배 수험생님의 이야기

The LEET BIBLE 선배 수험생님께서 공유해 주신 후기 중에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만하고, 강조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도 잘 녹아있는 이야기가 있어 간단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공부'라는 것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그간 자기만의 방법으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멍청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하면 LEET도 오르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인강, 요약, 독서, 스터디 등등. 그런데 'LEET'는 진짜 열심히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오히려 더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닥 정설로 불리우는 'LEET신수설'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면서 계속 좌절하고 있던 가운데, The LEET BIBLE 원리 수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떤 연유로 수업을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시강이 끝나고 느낀 바가 'LEET 어려운데 완전 쉽게 푸네? 개쩌네? ㅋㅋㅋ' 이게 전부였습니다. 시강 때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차원의 구획, 논의의 평면, 언덕을 만든다.' 이런 용어들은 솔직히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²⁴.

그냥 "나랑 다르게 쉽게 푸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에겐 'LEET를 쉽게 푸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 어차피 여러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됐으니, 마지막으로 그냥 무조건 따라가자 라는 마인드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2주 차 때 제가 리뷰노트에 "이해를 바탕으로 형식을 추구하는 순서가 아니라, 형식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글의 이해를 맞춘다."라는 말을 써놓았더라고요. '칸트, 동물 감정론 제1문' 사례였습니다. **공통 원리를 적용하고, 이를 사례를 통해 반복 적용하면서** 듣다 보니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글자모만 보였는데, 점점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업 회차가 늘어나면서 선생님이 푸는 문제들을 계속 접할수록 했던 말들이 계속 반복됨을 느꼈고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던 원리나 말들이 어느 순간 '탁'하고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²⁴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덧붙이자면, 이러한 용어와 개념은 "실질적으로나 실전적으로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화, 변수화, 코딩화' 하기 위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럴싸한 용어로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접근방법을 가르치는 강사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장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의 기본이 되는 개념에 대한 첫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차원의 구획, 논의의 평면적 변수, A의 B, 일상어의 간과, 사례의 중요성** 등의 개념어를 떠올려 보시면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가는 작업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했던 바를 가장 효과적으로 시험장에서 꺼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원리를 적용했던 사례들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이런 문제 풀어봤으니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 봐야겠다'를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출문제'를 푸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제1장에서 다룬 내용은 사실상 나머지 장의 내용과 90% 이상 겹칠 겁니다. The LEET BIBLE은 똑같은 개념과 표현을 바탕으로 사례를 추가해 나가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LEET가 요구하는 사고방식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LEET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적성시험형 사고방식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나만의 언어로 체화하는 게 전부죠. 수험생들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CHAPTER

02

차원의 이해



The
LEET
BIBLE™

“

차원의 구획은
모든 LEET 문제에서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형식적 사고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기법이 아니라,
지문 속 서로 다른 논의의 층위를 구분하고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그 자체가 형식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차원의 이해

The LEET BIBLE

1 논의의 층위를 만드는 '차원'의 이해

차원의 구획은 논증을 전개하는 사고의 층위를 구획하는 작업으로, **'답론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구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논증이 이루어질 때, '논증이 전제하는 사실'과 '논증이 전개하는 주장'을 구분하는 것이 차원의 구획에 해당합니다.

차원의 구획은 **LEET에서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에 적용**됩니다. 법률규정 문제, 추리 문제, 논증 문제, 강화·약화, 과학 실험 문제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핵심 사고 방식**입니다. 언어이해에서도 차원을 구획하였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며, 궁극적으로 후술할 도구적 개념인 논의의 평면적 변수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상, 형식적 변수는 차원의 구획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원의 구획은 LEET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사고 활동과 의사소통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수험생들은 문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 분석할 때도 차원의 구획을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차원의 구획 능력이 선행되면 다른 형식적 변수를 발견하는 능력도 쉽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차원의 구획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 **LEET 문제에서 차원의 구획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명사나 일상어 등 **구체적인 진술에 차원이 함축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단어의 실행” 능력(제5장과 제6장에서 자세히 논의합니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 **대응형 문제**를 소개하면서 LEET 시험에 필요한 필수적 사고의 틀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형식적 사고의 세부 개념을 하나씩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물론 설명으로 그치지 않고 수험생 여러분께서 해당 개념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각인’과 ‘체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LEET라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수험생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Input을 투입해야 효율적일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학습 내용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한지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직접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으로 2018학년도 추리논증 2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대응형 문제로서, 제1장에서 배운 기술들을 충분히 체화했다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24. ㉠에 대한 근거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의 기전에 의해 사망하는 것을 화재사라고 한다. 화재 현장에서 불 완전연소의 결과로 발생한 매연(煤煙)을 들이키면 폐 기관지 등 호흡기 점막에 새까맣게 매(煤)가 부착된다. 화재 현장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독가스 중 일산화탄소는 피해자의 호흡에 의해 혈류로 들어가 헤모글로빈에 산소보다 더 강하게 결합하여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한다. 생체의 피부에 고열이 작용하면 화상이 일어나는데 그중 가장 경미한 정도인 1도 화상에서는 손상에 대한 생체의 반응으로 피부로의 혈액공급이 많아져 발적과 종창이 나타난다. 더 깊이 침범된 2, 3도 화상에서는 피부의 물질, 피하조직의 괴사 등이 나타난다. 불길에 의해 고열이 가해지면 근육은 근육 단백질의 형태와 성질이 변하여 위축되는 모양을 띤다. 근육의 위축은 그 근육에 의해 가동되는 관절 부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관절을 펴는 근육보다는 굽히는 근육의 양이 더 많으므로 불길에 휩싸여 열변성이 일어난 시신은 대부분의 관절이 약간씩 굽은 모습으로 탄화된다.

한편, 화재 현장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어 부검이 시행되었다. 부검을 마친 법의학자는 ㉠ 희생자가 생존해 있을 때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의 기전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보 기>—

- ㄱ. 불에 탄 시체의 관절이 약간씩 굽어 있다.
- ㄴ. 얼굴에 빨간 발적이나 종창이 일어난 화상이 있다.
- ㄷ. 혈액 내에 일산화탄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 농도가 높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이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푼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제가 요구하는 논의의 평면적 변수들을 한번에 정확히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구획하면서 풀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앞서 1교시에서 언어이해 30문제를 모두 풀면서 체력과 집중력을 다 소진한 상태로 위의 추리논증 24번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인생이 걸려 있다는 극도의 긴장감과 이제껏 문제를 풀어서 떨어진 체력이라는 변수를 고려하면, 이 문제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간단해 보일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수험생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¹⁾.

제가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형식적 원리를 알고 있는 것과 시험장에서 해당 문제를 맞히는 능력은 별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한 시간을 드릴 때는 이러한 현실적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문제 풀이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를 처음 마주했을 때, 아래와 같은 사고과정을 거쳐 오답인 5번을 체크했습니다.

당시의 사고 과정을 공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의 경우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 그대로 써 있구나.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다."

"ㄴ의 경우 7번째 줄에 생체의 피부에 고열이 작용하면 화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 가장 경미한 정도인 1도 화상에서는 손상에 대한 생체의 반응으로 피부로의 혈액 공급이 많아져 발적과 종창이 나타난다"라고 써 있으니깐 이것도 맞는 말 같다."

"ㄷ의 경우 그 바로 앞 3~5번째 줄에 있으니깐 이것도 맞는 말 같은데, 그래서 답은 5번!"

이런 과정을 거쳐 처음에는 답을 5번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까만 것은 글이오, 하얀 것은 종이로다' 식 풀이는 LEET가 측정하고자 하는 사고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훈련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형식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LEET가 측정하고자 하는 주요 사고방식이 '**형식적 변수의 발견**' 또는 '**차원의 구획**'에 해당하는 **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형식적 변수를 찾기 위한 분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즉, 능동적으로 형식적 사고의 틀을 환기하여² 발문과 ㉠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24. ㉠에 대한 근거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희생자가 **생존해 있을 때(시간)**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의 기전에 **의해(방법)**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자 이전에는 흘러 읽어서 보이지 않았던 논의의 평면적 변수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선지와 본문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시간'과 '방법'이라는 변수를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 본서를 통해 여러 차례 강조드리겠지만, '원리를 아는 것', '원리를 습득하는 것', '원리를 실전에서 수행하는 것'을 분리하여 학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LEET 수험 생활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사고 과정을 그대로 공유하는 이유는, LEET 시험장에서 **고득점자들 역시 모든 문제를 어려움 없이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핵심은 문제를 풀며 어려움을 마주하였을 때, 다시 형식적 사고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향의 훈련이 이뤄져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책을 읽어나가실 때는 '올바른 사고 과정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며 읽으시기를 권장합니다.

ㄱ. 불에 탄 시체의 관절이 약간씩 굽어 있다.

다시 ㄱ을 읽어보니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살아 있을 때가 아닌 죽은 이후의 시체 역시 관절이 굽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존해 있을 때'라고 변수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가 이러한 구획을 요구하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기에,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LEET에서 의식적으로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며, 상당히 중요한 행동 방식입니다.³

LEET TIPS

문제가 요구하는 형식을 확정짓기 위해 다른 선택지를 이용하라

문제가 요구하는 사고 과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실전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행동양식은 그 선택지 자체로 확정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다음 선택지나 다른 진술을 통해 추가 정보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사고과정이 올바른 방식이라면, 다른 선택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면, 다른 선택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다른 선지 내 진술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흐릿하게 느껴졌던 사고 구조가 점점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고과정을 검증할 추가적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추측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LEET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언어이해의 경우, 단순히 같은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제시문 SET 내 문제 해결 시에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더 실전적으로는 흔히 '**운동장 안에서 뛰어놀지 못한다**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사고 과정이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ㄱ 선지를 각하로 처리하고, 같은 사고 과정을 후속 ㄴ, ㄷ 선지에 똑같이 적용하자 두 개 이상의 선택지가 각하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제시문에서 별도로 제시된 후속적 진술들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첫 단계에서 무관하다는 이유로 틀리다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해당 사고과정은 문제가 요구한 사고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큼**니다.

³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과정의 정오를 반드시 해당 문장 또는 진술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시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사고를 역으로 추출해 가는 것이 유효한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

- 2018학년도 추리논증 4번의 경우,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가부의 결의를 할 수 있느냐”와 “가결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선택지의 서술어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의 핵심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2019학년도 추리논증 18번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때”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믿을 때”를 같게 보아야 할지, 다르게 보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ㄱ, ㄴ 선지를 모두 각하로 처리한 경우, 문제에서 요구하는 추가적 사고과정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같다고 설정”하고 문제를 다시 풀어, 요구된 사고방식을 적용했습니다.

ㄴ. 얼굴에 빨간 발적이나 종창이 일어난 화상이 있다.

그중 가장 경미한 정도인 1도 화상에서는 손상에 대한 생체의 반응으로 피부로의 혈액공급이 많아져 발적과 종창이 나타난다.

ㄴ으로 다시 넘어갔더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단어, 즉 일상어로 되어 있어 놓쳤던 단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핵심 변수를 놓치기 쉬운 현상을 The LEET BIBLE에서는 ‘일상어의 간과’라고 별도로 정의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논의의 평면적 변수를 활용하였을 때, 이에 대응하는 차원은 ‘생존해 있을 때’입니다. 이는 결국 ‘생체’라는 단어가 ‘생존해 있었다’의 의미를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ㄷ. 혈액 내에 일산화탄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 농도가 높다.

ㄷ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으로 돌아가 보니 호흡할 때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검토한 ‘생체’와 마찬가지로 ‘호흡’이라는 단어 역시 ‘살아 있을 때’의 차원으로 보는

- 4 문제화되지 않은 변수에 스스로 집착하여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를 풀다 보면, 자의적으로 특정 표현이나 해석에 집중하다가 문제 풀이가 진행되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도 어떻게든 답을 맞힐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하나라도 더 맞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LEET의 본질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제한된 시간과 여건 속에서 최적의 결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것이 가능할까요⁵?

호흡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실행⁶해보자면, 호흡은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하고 살아있지 않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호흡이라는 단어도 '살아 있을 때'라는 차원을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징한 사례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ㄱ. 불에 탄 시체의 관절이 약간씩 굽어 있다.

결국, ㄱ에서 말하는 '관절이 약간씩 굽어 있는 것'은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시체일 때**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기준으로 차원을 구획할 때 '생존해 있을 때'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오답인 5번을 선택했으나, 정답인 4번으로 바꾸어 이 문제를 맞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18학년도 추리논증 24번을 함께 풀면서 일상어로 표현된 차원 구획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라는 논의의 평면을 통한 차원의 구획	
생존해 있을 때	생존해 있지 않을 때(죽었을 때)

이러한 구획 작업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구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해당 문제 역시 단순히 **살아 있을 때**와 **살아있지 않을 때**를 구획하는 것이 문제가 요구하는 전부였음에도 정답률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5 추후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문해력의 의미, 단어를 실행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6 여기서 느끼셨겠지만, 단어의 "실행"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다소 낯선 의미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읽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사고과정을 "실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 서가 **굳이 단어의 "실행"이라는 잉여적 의미를 삽입하며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대응형 사고방식과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이 이를 의식적으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수험생들이 단어의 실행 과정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본 점수에 해당하는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Review Note

✓풀어볼 문제

2018학년도 추리논증 24번

POINT

▶ 농친 부분, 문제의 변하지 않는 정신, 내가 깨달은 것, 선생님이 말해준 포인트

•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 문제를 풀려는 연습!

• 언덕 만들기 해둔 것을 바탕으로, 수시로 지문으로 돌아올 것

숨겨진 함수 찾기 문제 : 2018추#24, 2018추#32, 2013추#32

▶ 이 문제도 결국, 시간이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차원을 구획하는 작업이 핵심이자 끝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과학추리/실험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원의 구획만 하면 금방 끝나는 문제가 많습니다(함수 찾기가 끝인 문제. 나중에 풀어볼 2018학년도 추리논증 23번 피험자/실험자 문제도 동일합니다.)

WRONG

▶ 처음 풀이의 사고과정이 어디서 왜 잘못됐는지 깨닫기, 교정해야 하는 구체적 부분

• 명사가 아니라 차원을 구획해 주는 말에 밑줄 그을 것

• 기억에 의존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제발 지문으로 수시로 돌아가자!!

• 지문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은 배경지식으로 추론할 게 아니라, 알 수 없으니까 틀린 것!

CORRECT

▶ 올바른 풀이과정

1) 문제	㉠에 대한 근거를 물었으니까 ㉠을 먼저 보자. → ㉠을 읽음 → 웬지 생존해 있을 때가 출제 요소일 것 같다.	㉠에 대한 근거를 물었으니까 ㉠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함 → ㉠ 밑줄) 때에, 의해 → 생존해 있을 때, 화재의 기전에 의해 정도가 출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2) 지문	밑줄) 화재, 사망하는 것, 불완전연소, 매연, 점막, 매, 유독 가스 중 일산화탄소, 혈류 등 중요해 보이는 명사 ▶ 명사가 아니라 차원을 구획해주는 말에 밑줄 긋자 꼭 이해하며 읽으면서 화재로 인한 1) 호흡 2) 피부 3) 근육, 관절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 지문임을 파악 (내용을 이해)	밑줄) 의해, 들어키면, 의해, 들어가, 보다, 하연, 많아져, 의해, 가해지면, 변하여, 의해, 보다는, 많으므로
3) ㄱ	관절은 근육이 위축되면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죽은 다음에 근육이 저절로 위축될 수 있나?(▶ 다시 지문 읽을 생각하지 않고 이해한 것 + 기존의 배경지식 도입) 웬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 그럼 생존해있을 때 화재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근거가 되지 못하겠네 → ㄱ틀림 → ㉡, ㉣ 중 정답 → ㄷ부터 보기	'불에 탄 시체의 관절'은 위 글에서 '열변성이 일어난 시신은 대부분의 관절이 약간씩 굽은 모습'과 대응됨, 이 부분은 생존해 있을 때와 무관한 영역이므로 무관

4) ㄷ	• 헤모글로빈 농도는 호흡이랑 관련해서 나왔던 것 같다(▶ 기억에 의존, 그러나 다시 지문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음 + 기존의 배경지식 도입) → 호흡은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 → 생존해있을 때 화재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 ㄷ 맞음 → ④ 적음	• 헤모글로빈 농도가 높은 것은 위 글에서 '호흡에 의해 혈류로 들어가 헤모글로빈에 산소보다 더 강하게 결합하여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한다'와 대응되고 이것도 생존해 있을 때와 관련이 있음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 읽는 것이 가능했던 문제! 읽지 않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야 한다		
5) ㄴ	• 발적-종창 이야기는 1도 화상이었던 것 같다(▶ 기억에 의존, 그러나 다시 지문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음) → 지문에서 1도 화상에서 피부로 혈액 공급이 많아져 발적, 종창 발생한다고 했던 것 → 혈액 공급은 결국 심장이 뛰어야 가능한 것(▶ 기존 배경지식 도입)이니까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하겠네 → 생존해 있을 때 화재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 ㄴ 맞음	• 얼굴에 빨간 발적이나 종창은 위 글에서 '손상에 의한 생체의 반응으로 피부로의 혈액공급이 많아져 발적과 종창이 발생한다'와 대응되고 생존해 있을 때를 언급하므로 관련이 있음

2 차원의 구획은 왜 중요한 것인가?

이렇듯 **차원의 구획**이란, 실전적인 행동 방식으로 이해하면 **제시문에서 제시하는 객관적 변수를 활용하여 문제에서 전개되는 논의의 층위를 정확하게 구획해 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떠한 개념을 상위 논의와 하위 논의로 구분하고, 개념이 이미 전제하고 있는 영역, 그리고 제시된 개념을 전제로 추후 논의되는 영역을 구분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의 영역을 구분 짓는 과정이 대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LEET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사고능력이 이러한 형식적 구획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논의의 영역을 올바르게 구획하는 것은 모든 형식적 사고의 기반이 됩니다.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고난도 LEET 문제 역시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개념의 구획 또는 차원의 구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은 제시된 개념과 소재를 이해하는 데 급급하지만, LEET 출제진은 수험생이 문제를 보고 논의의 영역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잘 구획하는지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직은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출 사례를 통하여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차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18학년도 추리논증 32번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L 선지에만 주목하여 ‘차원’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추리논증 32번



제한시간 2분 30초

32.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뇌피질에는 운동을 전담하는 영역, 시각을 전담하는 영역 등이 있다. 그럼 대뇌피질 속 이런 전담 영역들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영역의 겉모습이나 구조에 의해 그 전담 영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대뇌피질 영역들 사이의 연결 방식과 대뇌피질 영역과 중추신경계의 다른 영역 사이의 연결 방식에 따라 각 대뇌피질의 전담 영역이 결정된다. 즉 ㉠ 대뇌피질의 전담 영역은 각 영역이 가진 고유한 물리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들과의 연결 양상에 의해 결정된다.

㉣ 대뇌피질로 들어오는 입력의 유형은 근본적으로 똑같다. 물론 청각과 시각은 그 성질이 다르다. 소리는 파동의 형태로 공기를 통해 전달되고, 시각은 빛의 형태로 전달된다. 그리고 시각은 색깔·결·형태를, 청각은 음조·리듬·음색을 지닌다. 이런 점들 때문에, 각 감각기관들은 서로 근본적으로 분리된 상이한 실체로 생각되곤 한다. 그러나 그런 상이한

감각이 관련 기관에서 활동전위로 전환되고 나면, 각 기관이 뇌로 전달한 신호는 모두 똑같은 종류의 활동전위 패턴에 불과해진다. 우리 뇌가 아는 것이라곤 이들 패턴들뿐이며,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가 인식한 외부 세계의 모습은 모두 그런 패턴들로부터 구축된다.

결국, ㉠ 뇌에 의해 파악된 외부 세계와 몸 사이의 경계는 바뀔 수 있다. 활동전위의 패턴이 전달되면, 뇌는 전달된 패턴들에 정합성을 주는 방식으로 몸의 경계를 파악한다. 이때 패턴이 흔히 몸의 일부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유래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패턴이 정합적으로 전달되기만 하면, 뇌는 그 패턴만을 이용해서 그것이 유래된 것을 몸의 일부로 통합하게 된다. 외부 세계와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은 모두 패턴들로부터 구축된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

<보 가>

- ㄱ. 대뇌피질 전체가 겉모습이나 구조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균일하다는 사실은 ㉠을 강화한다.
- ㄴ. 뇌기능 영상촬영 기법들을 이용하여 특정 과제가 수행될 때 평소보다 더 활성화되는 부위를 검출함으로써 얼굴인식 영역, 수학 영역 등과 같은 특화된 영역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을 약화한다.
- ㄷ. 다른 감각을 차단한 채, 작은 갈퀴를 손에 쥐고 무엇인가를 건드리도록 한다면 뇌는 작은 갈퀴를 우리 몸의 일부로 여긴다는 사실은 ㉢을 강화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대뇌피질로 들어오는 입력의 유형은 근본적으로 똑같다.**

본문의 ㉡을 보면 '대뇌피질로 들어오는 입력의 유형은 근본적으로 똑같다'라고 정말 간단하게 쓰여 있으나, 수험생 대부분이 해당 선택지를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수험생

‘특정 과제가 수행될 때 평소보다 더 활성화되는 부위를 검출함으로써’라는 부분을 논의의 영역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대응 포인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접근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에서 무엇을 하라는지 자체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함축된 형식을 능동적으로 도출해 내고 이에 대응하는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⁷.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험생 대부분이 L 선지와 제시문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소비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1장에서 설명했듯이, 문제와 선지를 단순히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대응하려 하지 말고, **형식을 기계적으로 꺼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와 흡사합니다.

문제가 물어보는 변수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일상어 단어 그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형식적인 구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제1장에서 설명한 개념을 다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A의B** 형식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LEET TIPS
A의 B

수험생들은 일반적으로 A의 B 형식에서 B에 해당하는 '개념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A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A가 객관적 대응을 위한 표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표현이 일상어로 쓰일 경우 놓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일상어의 간과를 주의해야 합니다. **ex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행정**

1장에서 A의 B의 사례로서 2015학년도 추리논증 22번 문제의 “서식지와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본능적으로 동일한 규칙”을 학습했습니다⁸. 해당 문제에서도 중요한 대응 지점은 “동일한 규칙”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서식지와 배우자를 선택할 때”라는 관형사(A)가 본능적으로 동일한 규칙과 연결되는 핵심적 대응 지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앞서 함께 다루었던 문제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뇌피질로 '들어오는'에 밑줄을 치면 시간을 지칭하는 논의의 평면적 표현들이 보이고 이를 통해 시간적 선·후의 차원이 구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의 유형	
대뇌피질로 들어오기 전	대뇌피질로 들어오고 난 후 (~대뇌 피질로 들어오기 전)
시간적 先(incoming)	시간적 후(後)

㉠은 대뇌피질의 '들어오는' 입력 유형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뇌피질로 들어오고

- 7 언어이해도도 명시적인 이항관계를 능동적으로 도출하여 이용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8 형식적 사고의 틀을 내 것으로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은 첫째, 관련된 문제를 연결하는 작업(이하 'Link 작업')을 통해 문제를 관통하는 원리를 체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OUTPUT 생성 작업을 통해 각인하는 것입니다.

난 뒤의 시간적 차원은 논의의 대상 자체가 아니며, 무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 강화·약화를 확인하는 선택지 ㄴ을 살펴볼까요?

ㄴ. 뇌기능 영상촬영 기법들을 **이용하여** 특정 과제가 **수행될 때** 평소보다 더 활성화되는 부위를 **검출함으로써** 얼굴인식 영역, 수학 영역 등과 같은 **특화된 영역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을 **약화한다**.

ㄴ 선지에서는 ‘뇌 기능 영상촬영 기법’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한 번도 보지 못한 단어가 나왔을 때, **당황스럽겠지만, 이러한 단어는 본문에서 논의하는 특정한 차원이나 진술을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징한 사례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다면 뇌기능 영상촬영 기법을 이용한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촬영 시점을 고려해 보면, 이는 시간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대뇌로 들어오고 난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촬영을 통해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해당 정보는 대뇌피질의 ‘들어오는’ 입력 유형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논의의 대상인 시간적 선(先) 차원이 아니라, 후(後) 차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ㄴ 선지는 서술이 아무리 상세하더라도 ㉠과는 무관하므로, 옳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이처럼, 차원의 구획을 실행하여 변수의 관련성을 능숙하고 (오류 없이) 빠르게 판단하는 것은 시험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실제 시험장에서 긴장할수록 더욱 그렇겠지요. 너무나 많이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느라 급급해하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은 새로운 정보를 보자마자 해당 정보를 ‘있는 그대로’ 빠르게 처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대응형 사고방식에서 말씀드리려는 바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대응형 사고방식의 핵심은 **형식적 기능에 맞춰 있는 표현을 그대로 활용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능력은 차원의 구획을 통해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구획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어로 구획된 차원을 발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습해야만 LEET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학습을 위해 ㄱ 선지를 보겠습니다.

㉠ 대뇌피질의 전담 **영역은** 각 영역이 가진 **고유한** 물리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들과의 연결 양상에 의해 결정된다.